

만 남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최태식 필립보 주임신부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www.mannam.de

신부님 칼럼	벌써 벌써 -----	4
소공동체 모임 자료	예수그리스도와 함께 -----	6
글 모 음	임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라	8
	세 개의 신성한 순례길 -----	9
영명축일	-----	10
공동체 소식	-----	11
활동모임시간 및 연락처	-----	13
이달의 전례 및 행사	-----	14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15
미사안내	-----	16

《교황님의 기도 지향》

- ❖ 일반 지향 - 모든 학자와 지식인이 성실하게 진리를 추구하여 한분이신 참하느님을 알게 되도록 기도합니다.
- ❖ 선교지향 - 교회가 자신의 선교 사명을 깊이 새겨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고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힘쓰도록 기도합니다.

벌써 벌써

최태식 필립보 주임신부

벌써 2월입니다.

‘벌써’ 라는 말이
2월처럼 잘 어울리는 달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새해맞이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2월.

벌써 '사순절'입니다.

성탄을 맞이하고 기뻐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성탄을 지나 연중을 보내고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올해의 사순절은 어떻게 맞이해야할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벌써 '2010'입니다.

2000년 밀레니엄을 축하하면 폭죽을 터트린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강산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시간은 엄청난 속도로 달려갑니다.
30대에는 30Km로
40대에는 40Km로
50대에는 50Km로 달려간다고 합니다.

벌써 여러분의 나이 40입니다.

꿈 많던 소년 소녀시절을 보내고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찾아온 독일에서
삶을 일구고, 가정을 가꾸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온 세월 40년입니다.

내년 2011년은 함부르크 한인성당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벌써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신부님들이 사목을 하시다 가셨고
신자 분들 중에는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2세대들이, 아니 3세대들이 벌써 커가고 있습니다.

벌써 2월입니다.

벌써 사순절입니다.

벌써 2010년입니다.

벌써 본당철립 40주년입니다.

그런데 벌써 준비해야 하는 것은 없을까요?

당신이 죽기 전에 수의를 준비하셨던 옛 어른들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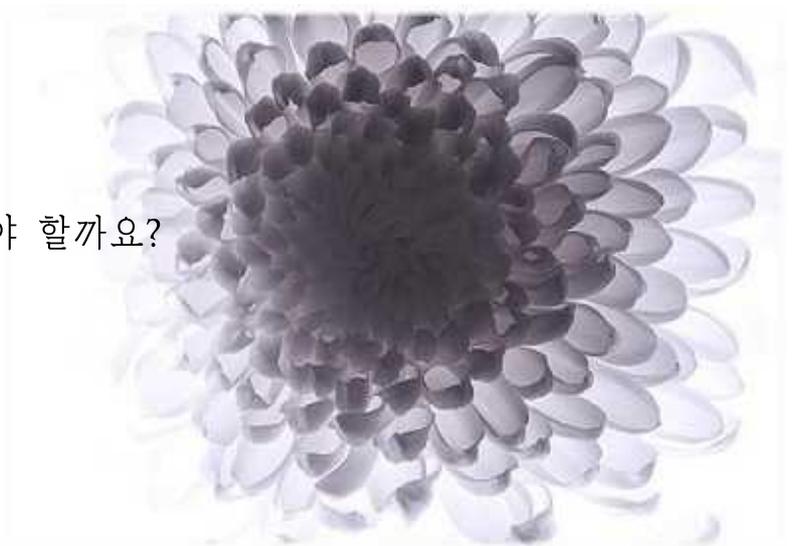
우리가 벌써 준비해야 하는 것은 없을까요?

신앙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 예수그리스도와 함께 1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성가 415번 '사랑이 없으면'을 부르시겠습니다.

-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주님,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소서.
- 주님, 이 자리에 오시어, 저희가 사랑을 나누며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 삶의 이야기

(진행자) 우리가 잘 아는 도종환 시인의 ‘벗 하나 있었으면’이라는 시를 먼저 한 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감정을 실어서 읽어 봐주시겠습니까? 읽으실 때 다 함께 각자에게 소중한 친구를 떠올리면 이 글을 되새겨 들어보도록 합시다.

마음 울적할 때 저녁 강물 같은 벗 하나 있었으면
 날이 저무는데 마음
 산그리메처럼 어두워올 때
 내 그림자를 안고 조용히 흐르는 강물 같은 친구 하나 있었으면

울리지 않는 악기처럼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낮은 소리로 내게 오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 노래가 되어 들에 가득 번지는 벗 하나 있었으면

오늘도 어제처럼 고개를 다 못 넘고 지켜 있는데
 달빛으로 다가와 등을 쓰다듬어주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라면 칠흑 속에서도
 다시 먼 길 갈 수 있는 벗 하나 있었으면...

벗 하나 있었으면 / 도종환

(진행자) 내 삶의 짐을 함께 덜어주는 소중한 친구를 그리워하게 하는 글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는지, ‘나’는 어떤 친구에게 이렇듯 소중한 마음으로 다가가는지 나누어 봅시다.

- 하느님의 말씀

(진행자) 요한 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서는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는 것에 대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이 복음 말씀도 그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께서 곧 겪게 될 사건들과 그것을 목격하고 절망하게 될 제자들을 생각하시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제자들에게 친구로서 당부하십니다.

어느 분이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쉬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예수님께서서는 스승을 잃고 방황하며 다시금 뿔뿔이 흩어져 버릴 지도 모를 제자들을 보시며 ‘친구’라는 말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제자들이 당신의 소중한 친구로서 아버지를 알고 열매를 맺으며 당신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밀히 결합해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벗으로서의 속 깊은 사랑이 느껴집니다.

- 1) 우리도 예수님의 이러한 깊은 사랑을 느껴본 적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 2) 예수님의 깊은 사랑에 대한 체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나누어 봅시다.
 - 3) ‘서로 사랑하여라.’는 계명이 가톨릭 신자로서의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나누어 봅시다.
- 기타토의(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마침기도(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 마침성가 (진행자)가톨릭성가 416번 ‘종기도 좋을시고’를 부르시겠습니다.

❖ 글 모 음 ❖



입은 전 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입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라.
 입은 전 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입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라.
 이 뒷날 입이 보시고 날 다했다 하소서.
 이 뒷날 나를 보시고 입 다했다 하소서.
 이 세상 다할 때까지 당신만 따르리라.
 당신만 따르리라.

세 개의 신성한 순례길

기독교 탄생이후 첫 천년동안 세 개의 신성한 순례길이 존재했다.

누구든지 그곳 중 하나를 따라 걷는 사람에게는 많은 축복과 관용이 베풀어졌다.

첫 번째 길은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의 무덤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 상징은 십자가이고,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은 ‘로마의 방랑자’라고 불렸다. 지금 이 길은 사라졌으나 복원 중에 있다.

두 번째 길은 예루살렘의 예수의 성묘(聖墓)로 향하는 길이었다.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은 ‘수상가(手相家)’라고 불렸다.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를 맞아준 이들이 흔들었다는 종려나무 가지가 그 길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길은 이베리아 반도에 묻힌 사도 야고보의 성 유골에 이르는 길이었다. 그곳은 어느 날 밤 양치기가 들판 위에서 빛나는 별을 봤다는 장소이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후 성 야고보와 성모 마리아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곳을 지나갔다고 한다. 그곳에는 콤포스텔라(별들의 들판)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오래지 않아 모든 기독교도 국가의 여행객들이 몰려드는 도시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 신성한 세 번째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에게는 ‘순례자’라는 이름이 주어졌다. 이 길을 산티아고 가는 길이라 한다.

《산티아고 가는 길 프랑스 Route》

St.-Jean-Pied-de-Port ⇒ Roncesvalles(25km) ⇒ Larrasoana(26km) ⇒ Pamplona(15km)
 ⇒ Puente la Reina(25km) ⇒ Estella (21km) ⇒ Torres del Rio (22km) ⇒ Logroño
 (21km) ⇒ Nájera(29km) ⇒ Santo Domingo de la Calzada(21km) ⇒ Belorado(23km)
 ⇒ San Juan de Ortega(24km) ⇒ Burgos(27km) ⇒ Castrojeriz(39km) ⇒ Frómista(25km)
 ⇒ Carrión de las Condes(19km) ⇒ Sahagún(38km) ⇒ El Burgo Raneros(18km) ⇒
 Mansilla de las Mulas(19km) ⇒ León(17km) ⇒ Villadangos(22km) ⇒ Astorga(26km)
 ⇒ Rabanal del Camino(21km) ⇒ Ponferrada(33km) ⇒ Villafranco del Bierzo(23km)
 ⇒ O Cebreiro(28km) ⇒ Sarria(39km) ⇒ Portomarín(21km) ⇒ Palas de Rei(24km)
 ⇒ Arzúa(29km) ⇒ Santiago de Compostela(39km) (30일, 759Km)

❖ 2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3일	안스가리오 (St. Ansgar)	이 경 규	10일	스콜라스티카 (St. Scholastica)	조 영 희
4일	베로니카 (St. Veronica)	김 현 아 박 선 미	16일	율리아나 (St. Juliana)	서 영 주
5일	아가타 (St. Agatha)	이 계 순 문 경 영 이 은 경 정 순 화	18일	마리아나 (St. Mariana)	한 말 조
7일	리차드 (St. Richard)	박 춘 실 Groensel	24일	마티아스 (St. Matthias)	이 도 영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1월 1일	1월 3일	1월 10일	1월 17일
계(€)	236,65	205,51	151,32	162,26

❖ 미사 전례 ❖

2 월	독 서	제 병 봉 헌	카 페 봉 사
7일	윤예진 모니카 심은희 안나	김치수 도밍고 이영희 클라우디아	에 덴 반
14일	허채열 크리스티안 허영란 엘리자벳	손대조 요셉 강순행 말가리다	햇 빛 반
21일	김순임 안나 김애란 체칠리아	이영원 베드로 김정옥 크리스티나	비 들 기 반
28일	이순자 마리아 권지연 안드레아	손수희 모니카 정정숙 아나벨	레지오 마리아

❖ **지난달 이야기**

↪ 1월 1일 신년 미사를 오스트리아 그라츠 부제님들과 신학생들이 함께 봉헌하였고 미사 후 떡국 나눔의 잔치가 있었습니다. 수고해주신 형제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 1월 13일 수요일은 최태식 필립보 주임신부님의 사제서품 기념일이었습니다.

↪ 그동안 총무임무를 수행하던 곽 케빈(요셉)형제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총무직을 사임하시고, 새로운 총무에 김 태웅(요셉)형제님께서 수고하시기로 하셨습니다.

↪ 1월 17일 주일 미사 후 울뜨레야 모임에서 허길조(안드레아)형제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매월 셋째 주 미사 후 울뜨레야 모임이 있사오니 꾸르실리스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1월 20일 레지오 월례회에서 다음과 같이 간부변경이 있었습니다.

단장 : 허명자(가밀라), 부단장 : 이순자(마리아)

서기 : 강순행(말가리다), 회계 : 권지연(안드레아)

↪ 하노버 공동체에서 문동철(분도)형제님이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수고해주신 문철준(안토니오) 형제님께 감사드리며 하노버 공동체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우리가 해야 할 일들**

- ↪ 주임신부님께서 2월 5일부터 12일까지 오스트리아 그랏즈에 교구 모임을 위해 가십니다. 2월 7일 주일 미사는 레기날드 신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 주간 평일미사는 없겠습니다.
- ↪ 2월 17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입니다. 사제관 친교실에서 저녁 7시에 미사와 재의 예식이 있겠습니다.
- ↪ **2월 17일부터 화요일 평일미사가 수요일로 변경됩니다.**
- ↪ 지난 성지주일에 나누어드린 성지가지를 2월 14일까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 2010년 4월 23일~25일까지 레지오 피정이 있습니다. 강사는 베를린 한인성당의 최경식(야고보)신부님이십니다. 활동단원과 협조단원, 관심 있는 분들은 꾸리아 간부들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전례분과에서는 독서자를 모집합니다. 독서를 희망하시는 교형자매님께서서는 김점선 실비아 전례분과장님께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비자 명단** ❖

예비자 입교식이 2009년 12월 27일 주일에 있었으며, 매달 둘째 주 미사 후에 예비자 교리반이 있습니다. 영세식은 2010년 7월 예정입니다.

예 비 자	인 도 자	소 속
도 차 남	정명옥 살로메	함부르크 본당
황 승 희		함부르크 본당
안 영 숙	이명자 가밀라	함부르크 본당
이 인 숙	신준기 불가시오	브레멘 공동체
Alexander Bai	강수잔나	브레멘 공동체
양 신 자		오스나브뤽 공동체

❖ 활동단체 모임 및 연락처 ❖

사 목 협 의 회	매월 첫째 주 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회 장	김 진 호 프란치스코	040/ 3742 0006	
예 비 자 교 리 반	매월 둘째 주 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복음화 분과장	정 명 옥 살로메	040/ 644 8623	
울 뜨 레 아	매월 셋째 주 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간 사	허 길 조 안드레아스	040/ 555 3441	
반 장 모 임	매월 넷째 주 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구 역 분과장	손 수 희 모니카	04106/ 72958	
주 일 학 교	매주일 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교 사	이 선 주 로사	0176 7636 2699	
청 년 반	매월 넷째 주 미사 후	사제관친교실	청소년 분과장	김 영 경 안드레아	0172 546 6886	
성 시 간	매월 첫째 목요일 19시	사제관친교실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Cr.	매월 셋째 목요일 미사 후	사제관친교실	단 장	이 명 자 가밀라	040/ 555 3441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9시 45분	사제관친교실	단 장	권 지 연 안드레아	040/ 651 1575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미사 후	사제관친교실	단 장	이 명 자 가밀라	040/ 555 3441
	순교자들의 모후(남성)Pr.	매주 수요일 미사 후	사제관친교실	단 장	김 치 수 도밍고	040/ 532 4138
성 령 기 도 회	매월 둘째 목요일 미사 후	사제관친교실		정 명 옥 살로메	040/ 644 8623	
구 역	햇 빛 반	2월 20일, 오후 3시, 김순임 안나 자매님 가정	반 장	정 명 옥 살로메	040/ 644 8623	
	비둘기반		반 장	김 점 선 실비아	040/ 713 3139	
	무궁화반					
	살 롬 반					
	동글레반		반 장	이 영 원 베드로	040/ 527 5311	
	에 덴 반	2월 10일, 오후 6시, 서상부 베드로 형제님 가정	반 장	오 명 순 마리아	040/ 4503 9612	
	예사모반		반 장	김 영 경 안드레아	0172 546 6886	

❖ 2016년 2월 ❖

날 짜	전 려	행 사			
1 월					
2 화	주님 봉헌 축일, 봉헌 생활의 날				
3 수					
4 목	성시간	사제관 친교실			
5 금	성녀 아가타 동정 순교자 기념일	신부님 Graz 교구 모임참석 (평일미사 없음)			
6 토	성 바오로 마키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7 일	연중 제5주일			사목협의회	예수성심성당
8 월					
9 화					
10 수	성녀 스콜라스티카 동정 기념일				
11 목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성령기도회	19시, 사제관친교실		
12 금					
13 토					
14 일	연중 제6주일, 설날(구정)	예비자 교리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15 월					
16 화					
17 수	재의 수요일(금욕과 금식)	사제관 친교실			
18 목	재의 예식 다음 목요일	레지오 월례회 평일미사 후, 사제관 친교실			
19 금	재의 예식 다음 금요일				
20 토	재의 예식 다음 토요일				
21 일	사순 제1주일	을 뜨 레 아	주일 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22 월	성 베드로 사도좌 축일				
23 화					
24 수					
25 목					
26 금		환자 영성체			
27 토					
28 일	사순 제2주일	반장모임 청년모임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주일미사 후 사제관 친교실		
비 고					

본당신부 최 태 식 필립보
사목회장 김 진 호 프란치스코
주 소 Danzigerstrasse 62, 20099 Hamburg
 Tel. 040 24 34 92
 Fax.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www.mannam.de E-mail: korea-ham@mannam.de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BLZ : 200 505 50, Konto-Nr. : 1230 126 136

발 행 인 최 태 식 필립보 신부 egoeimi73@hanmail.net
편 집 인 김 진 호 프란치스코 foktac@yahoo.co.kr
 이 은 우 데레사 eun_dendro@hotmail.com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내용은 함께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15분전)

시간 : 매주 일요일 15시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목요일 19시

장소 : 사제관, Danzigerstrasse 62,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장소 : St. Hedwig

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회장 : 태성현(바르톨로메오), H.P : 0172 456 2278

Osnabrück

시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6, 49074 Osnabrück

회장 : 설윤자(헬레나), H.P : 0176 3829 4986

Hannover

시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5시 30분

장소 : St. Antonius Kirche

Kleefeld Str.12a, 30625 Hannover, Tel : 05115/ 373000

회장 : 문동철(분도), Tel : 05281/ 606288